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ystem Construction, Integration and Use of
Local History Digital Archives in Korea

강 순 애(Kang, Soon-Ae)**

◁ 목 차 ▷

1. 서론	5.1 도서관간의 역사자료정보화시 스템의 구축 및 통합
2. 한국 지방사의 개념	5.2 박물관간의 국가문화유산종합 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
3. 한국 지방사의 시기별 서술체계와 지역별 연구현황	5.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 문화전자대전 구축
4.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 자료의 이용	6. 결론: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5. 한국 지방사 아카이브의 구축·통합 및 이용	

<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 지방사의 개념, 한국 지방사의 시기별 서술체계와 지역별 연구현황,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 자료의 이용, 한국 지방사 아카이브의 구축·통합 및 이용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방사의 개념을 제시하는 용어는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인데 이들 세용어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와 지방사의 연구도 향토사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지방사의 시기별 서술체계는 고대시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의 각 시기별로 지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지역의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역사적으로 이해해 나가는데서 자료의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연구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경기지역, 수원, 강원지역, 충청지역, 영남지역, 전남지역, 제주지역의 7개 지역에 대한 지방사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사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제1차, 제2차, 제3차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역사가 삶의 총체라고 강조하여 역사기록물, 고고미술사 자료, 고건축 관련 자료, 사회제도사 관련 자료, 통과예례 관련자료, 민속신앙과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 및 박물관간의 역사 및 문화정보시스템의 각각의 발전은 아직 단일화 된 통합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은 이러한 기관들의 자료를 통합하여 정리하는데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박물관간의 통합은 머지않은 장래에 각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기반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要語 : 한국지방사, 한국지방사아카이브, 지방사아카이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본 연구는 2006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특별연구비에 의함.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06년 8월 7일 최초심사일: 2006년 8월 9일 심사완료일: 2006년 9월 22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s of local history in Korea, its narrative system by period and current state and themes of research by region, the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courses, the use of local history materials, and the construction, integration and use of Korean local history digital archiv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ovincial history, regional history, and local history are the terms that represent the concept of local history in Korea. While they are slightly different in meanings, they still complement each other, and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re researched on the basis of provincial history. A narrative system for local history follows the perspectives of local people of each period: the ancient, Goryeo, Joseon, modern, and contemporary. The materials are organized in an effort to achieve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popular regional consciousness on regional cultures.

Also, the Korean History Research Society initiated a project to present the current state and themes of research that were conducted during each period on seven regions: Kyonggi, Suwon, Kangwon, Ch'ungch'ong, Yongnam, Chonnam, and the Jeju region. In order to systematize the educational program for local history, the Korean government included these contents in the 5th, 6th and 7th curriculum for junior high and high school level. Since the 7th stage curriculum in particular emphasizes history as the core of life, it has become urgent to organize systematically such historical materials as historical records, archaeological art history, ancient architecture, the history of social systems, transitional ceremonies, and folk myths and so on.

An integrated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system for organizing and getting access to the resources of libraries and museums, separately developed, has been yet develope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taken the leadership in bringing the resources of these institutions together by building an electronic dictionary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Nevertheless, the prospect of cooperation between museums and libraries in the near future is good based on the foundations that they have laid separately.

Key words : Korean local history, Korean local history digital archives, local history digital archives, electronic dictionary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1. 서론

한국에서의 지방사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역사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어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고, 1990년대에는 한국사연구에 미친 서양역사이론의 영향으로 인해 시대별로 체계화된 지방사 연구가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종합사, 생활사의 영역으로 확대 되었다. 연구의 확대가 체계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에 초점을 맞추되 그와 관련된 일반사의 내용을 통사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지방사연구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시기별로 서술체계시안과 활용자료를 제시하고 고대시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의 각 시기별로 지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지역의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역사적으로 이해해 나가는데서 자료의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연구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경기지역, 수원, 강원지역, 충청지역, 영남지역, 전남지역, 제주지역의 7개 지역에 대한 지방사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한 지방사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역사가 삶의 총체라고 강조하여 향토사 자료의 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이들 지방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지방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은 기관별로 진행되었지만 통합 및 이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서관간에는 역사자료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사 자료를 구축·통합하고 있고, 박물관간에는 국가문화유산종합시스템을 통해 구축 및 통합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방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기 구축된 DB를 통합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의 변화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리, 축적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이 이들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자료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도서관과 박물관사이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지방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을 중심으로 다루기 위해 한국지방사의 개념, 한국지방사의 시기별 서술체계와 지역별 연구 현황,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 자료의 이용, 한국지방사 아카이브의 구축·통합 및 이용, 평가와 전망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지방사의 개념

한국 지방사의 개념은 鄉土史, 地域史, 地方史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향토사를 'provincial history', 지역사를 'regional history', 지방사를 'local history' 등으로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의 용어로 발전되면서 쓰였다.

鄉土史는 일정지역의 토착성, 지방성, 고유성, 국지성, 고유성을 나타내는 말 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향토애를 내포하고 있다.¹⁾ 향토사의 주제는 연구주제나 연구대상이 향토성과 관련을 갖고 있어서 주관적이고 애향심에 빠져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향토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향토교육이다. 향토교육이란 향토 및 생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추상적인 국가나 세계의 시점에서 떠나 향토사회를 중심하여 교재를 구하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교육목적이나 방법,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교육상의 주장으로 독일의 교육사조에서 출발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²⁾

地域史는 수평적인 공간개념으로서 국가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역의

1) 金炫榮, “방법으로서의 지방사-조선시기‘사족지배체재론’을 중심으로-,”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研究會 (서울: 景仁文化社, 2000). 329.

2) 金炫榮, 前掲書. 330.

역사를 다루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향촌사회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한분야로서의 사회사(social history) 더 나아가 전체사(total history)로서의 사회사(history of society)에서 주로 지방을 단위로 한 사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향촌사회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³⁾

地方史는 지역사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다. 중앙과 지방은 간을 수직으로 나눈 개념이고 중앙에 종속적인, 주변적인 함축을 지닌 용어이다. 따라서 지방사는 국가사의 상대개념으로 사용되는 역사이다.⁴⁾

한국에서는 위에 제시한 세용어중 연구자들 사이에는 지역사와 지방사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학자들 중에는 지역사 또는 지방사는 지역의 역사상 혹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으로서 무엇보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족 문화적 보편성의 기반위에서 나타난 것이어야 하며, 그 양자의 비교속에서 지역적 특성이 명쾌하게 설명되어야 존재가치도 선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 한다.⁵⁾ 한편, 생활사나 문화사가 강조되는 학자군에서는 향토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는 약간 상이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용어들이다. 지방사 또는 지역사 연구는 향토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그 폭이 넓어질 것이고, 향토사도 중앙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명된 지방사나 보편성의 기반위에 이루어지는 지역사의 연구 없이는 객관성을 잃기가 쉬울 것이다.

3) 金炫榮, 前掲書. 329-330.

4) 고석규,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 1회역사문화학술대회』 (역사문화학회, 1998). 13-40.

5) 이해준, “한국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체계 시론,”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4.

3. 한국 지방사의 시기별 서술체계와 지역별 연구현황

3.1 한국 지방사의 시기별 서술체계

역사분야에서는 한국 지방사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체계화하기 위해서 시대별(장), 분야별(절), 지역특성의 테마(항)의 상하개념을 활용함으로써 통사적 시도위에 분야사가 접목 이해되는 방향을 설정하였고,⁶⁾ 이러한 방향으로 서술되고 자료가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를 중심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고대는 김수태 교수가 「한국 고대의 지역사 서술체계」에서 그 서술체계(시안)를 제시하였는데⁷⁾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3장, 8절, 33항으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 제 1장은 수렵채집의 단계에서 농경사회의 단계로 변화되는 과정에 추이를 맞추고 자연과 인간, 주거 공간, 토기사용, 청동기·철기시대와 마을의 형성, 사회계층화, 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국가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틀에서 지역의 국가형성, 연맹형성 및 삼국의 형성과 위상변화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촌락의 변화, 호족의 등장, 지역의 교류 및 문화동향, 후삼국과 지방사회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이병희 교수가 그 시안을 내고 있는데,⁸⁾ 이러한 서술체계는 8장 29항목 94개의 서술내용을 구체화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자치조직과 지방 세력을 이해하기 위한 호족의 문제, 지역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방행정편제, 국가적인 사건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동향, 촌락과 사회·경제생활, 향도와 지역

6) 이해준, “한국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체계 시론,”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9

7) 김수태, “한국고대의 지역사 서술체계,”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43-244.

8) 이병희, “고려시대 지역사의 서술체계와 활용자료,”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60-262.

공동신앙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조선왕조실록」, 각종 문집, 고문서, 금석문, 문화유적 및 유물 등을 들고 있다.⁹⁾

조선시대는 김동수 교수가 그 시안을 내고 있는데,¹⁰⁾ 대항목을 9개 영역, 소항목은 83여개의 서술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지역사 서술을 위한 지역특성과 문화성격이 잘 부각되는 서술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들 8개 영역의 체계화를 위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성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¹¹⁾ 첫째, 지리·지도 자료로서는 전국지리지, 읍별 지리지인 읍지·도지·군현지·촌동면지 등, 관방지류인 영지·진지·역지·원지·산성지·목장지 등, 지지류인 기행문·일기류·산천지·주제별 지지류 등의 고지도류를 들고 있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행정 구역 및 지방사회의 실정, 지방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 향촌사회의 질서체계 및 사족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고문서 자료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구조적으로 실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료로서는 지방의 전체사회에 관한 구조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수집과정을 전제로 해야만 지방사의 자료로서 이용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금석문 자료는 비문, 건물의 상량문·중건기, 범종이나 불상의 조상명·조탑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방사 연구의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문집자료는 문학작품이외에 정책건의문, 필자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교류와 관련 내용이 많아 체계적으로 수집이 되면 지방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일기류, 成冊類(호적, 양안, 향약, 동약, 사적류, 서원지, 사찰지, 향교지, 족보류 등), 역사유적, 민속생활자료, 지명자료 등도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근현대의 지역사는 지수길 교수가 3개의 시기로 나누어 그 시안을 제시하고

-
- 9) 이병희, “고려시대 지역사의 서술체계와 활용자료,”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47-270.
10) 김동수, “조선시대의 지역사 서술체계와 자료,”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91.
11) 김동수, “조선시대의 지역사 서술체계와 자료,”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292-301.

있는데,¹²⁾ 한국의 근현대를 3개의 시기 즉 개화·한말 시기, 일제 강점 시기, 해방 8년 시기로 나누었고, 개화·한말 시기는 상위주제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분야, 문화 분야의 4분야로 나누고, 하위주제들은 17개 분야로 세분하였으며, 서술항목은 48개의 내용으로 나누었다. 일제 강점 시기는 상위주제를 역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의 4분야로 나누고, 하위주제들은 26개 분야로 세분하였으며, 서술항목은 111개의 내용으로 나누었다. 해방 8년 시기 상위주제를 역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분야, 문화 분야의 4분야로 나누고, 하위주제들은 14개 분야로 세분하였으며, 서술항목은 76개의 내용으로 나누었다.

이들 시기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기록물인데 정부기록보존소가 가지고 있는 34만 권의 문서는 구한말정부문서가 70권, 총독부문서가 26,473권, 대한민국정부문서가 308,703권 등이다. 둘째, 사기록물은 각 시기별 신문, 도시홍보용 책자, 인명록, 일기·서간·회고록·치부책·가계부 등이다. 셋째, 구전 및 인터뷰자료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나 집단기억을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군이다. 넷째, 유물·유적자료는 근현대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소유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활용되는 것이 많아 활용의 어려운 점이 많다. 다섯째, 사진 및 영상자료는 시기별로 남아 있는 사진자료 영상물들은 당시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¹³⁾

3.2 한국지방사 연구의 지역별 연구현황

지역별로 지방사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나는 수년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서 비롯되었다. 기초, 광역자치단체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12) 지수걸, “한국 근현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자료,”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313-321.

13) 지수걸, “한국 근현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자료,” 『한국사연구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322-336.

되었고,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도 자기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바로 향토사와 지방사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 연구가 너무 중앙중심, 연대 중심의 이해에 그치고 구체적인 생활의 장인 각각 단위 지역공동체에 대한 매우 미약하였다고 하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반성에서 1980년대 이후 지방사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1998년 10월 한국사연구회는 그동안 지역별로 이루어진 지방사연구를 묶어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 과 課題』총서 제1집으로 간행하였다. 제1집에는 경기 지역, 수원, 강원지역, 충청지역, 영남지역, 전남지역, 제주지역의 7개 지역에 대한 지방사 연구를 실고 있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현황과 그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지역은 경기도, 인천, 서울특별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경기지역의 연구는 70년대 이후 향토사학자와 전공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하였다. 경기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연대기, 개인문집, 고문서, 금석문 등을 들고 있다. 이 지역의 연구현황은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근대는 선사(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사시대는 연천, 파주, 양평, 고양, 평택을 중심으로 한 구석기 유적의 연구가 있었고, 신석기는 70개소의 유적이 남아 있어 그 지역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한강유역의 세형동검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초기철기시대는 한강유역의 초기 철기문화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국시대는 초기백제의 성립과 발전문제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통일신라 시기는 통일신라의 지방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시기는 경기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토성연구의 일환으로 경기지역의 토성 또는 가문을 연구한 것, 고려

14) 金炫榮, “방법으로서의 지방사-조선시기 ‘사족지배체재론’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 과 課題』(景仁文化社, 2000), 327-360.

의 대외항쟁에 대한 연구 및 불교사연구 등이 있다. 조선시대는 한양천도 및 조선시대 지방제도 개편, 지주전호제의 전개 등 조선 전기 사회경제의 전개, 양반시기의 항쟁, 성리학과 실학의 전개, 조선후기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다.

근현대는 개항기, 일제시기, 해방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항기의 주제는 개항과 사회경제적 변화, 민족운동 또는 저항 운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일제시기는 일제의 통치체제 및 지배정책, 일제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민족해방투쟁과 노동운동 등에 집중되었다. 해방 후는 해방 후의 정치적 변화 및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지역의 연구의 과제로는 경기 지역사라는 의식의 결여, 개념의 미정립, 목적의식의 불분명, 연구의 목적과 의식의 부족, 각 분야별 전문연구가의 부족, 기초자료의 정리와 조사의 부족, 지역사에 대한 교육의 결여와 자료 부족 등을 들고 있다.¹⁵⁾

2) 수원지역은 연구주체에 따른 지방사연구, 시대별 연구현황, 연구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연구주체에 따른 지방사연구는 개인별, 지방정부 및 문화원, 민간 연구단체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별은 해당 지역의 향토사가와 수원소재 대학 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원지방 3.1운동의 지방사적 시각의 조명과 화성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집중되었다. 지방정부 및 문화원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경기지역의 각 시·군을 중심으로 지방지의 편찬이 이루어졌는데 1986년에 수원문화원이 간행한 「수원시사」 등이 간행되었고, 지표조사를 통한 문화유적 및 생활사 자료를 중심으로 29종의 총람 및 보고서들이 간행되었다. 수원지방 소재 대학의 사학과와 박물관을 중심으로 화성성역,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향토사 연구의 현황과 방

15) 조성을, “경기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景仁文化社, 2000), 7-39.

16) 崔洪奎, “수원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景仁文化社, 2000), 40-76.

향 등이 다루어졌다.

시대별 연구현황은 통사, 선사~고려시대, 조선후기 19세기말~식민지시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통사는 화성과 수원의 역사,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 연구의 과제가 다루어 졌다. 둘째, 선사~고려시대는 연구가 매우부진한 편이다. 고대는 고분, 토기류, 고인돌문화 등이 있고, 삼국시대사는 직접적인 연구가 거의 없으며 백제고분, 백제산성에 대한 논고가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는 수주최씨, 수원김씨, 수원백씨, 남양홍씨가 가문의 활동을 다룬 것이 두드러진다. 셋째, 조선후기는 정조대 화성 신도시의 역사와 화성관련 연구가 32편정도 있고, 정조의 능행과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미술·건축사적 연구가 24편정도 이루어졌다. 넷째, 19세기말~식민지시대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3·1운동 관련 연구가 23편 정도 이루어졌다.

연구과제와 방향은 연구자의 확보와 양성, 주제별·시대별로 연구의 세분화 및 전문화, 지방관련 자료조사, 전통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 정체성을 밝힌 연구방향의 설정, 생활사·사회사·문화사로의 종합적 성격의 부각, 향토사와 전공연구자들과의 공조, 한국사 전체와의 깊은 관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강원지역은 지방사연구와 지방문화, 현황과 문제점, 원주를 중심으로 한 활용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되었다.¹⁷⁾ 강원지역의 연구현황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연구 성과가 다른 지역보다 그 양과 범위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첫째,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관동대의 영동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세대학교의 메지학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연구가 수행되고, 이들 대학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선사유적을 발굴 조사하여 보고서를 내고 있다. 춘천 중도, 횡성 둔내, 양구 상무릉리, 명주 안인리, 황천 하화계리 등이 선사 및 상고시대문화의 중심이었음이 밝혀졌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우선, 강릉과 춘천 지역이 濊貊國이었음이 밝혀졌고, 이외에 悉直國, 신라 오대산 사적, 궁예와 태봉의

17) 吳永教, “강원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 의現況 과課題』 (景仁文化社, 2000), 77-109.

전설이나 유적에 대한 역사학적 검토, 각 지역에 산재한 산성, 탑비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는 연구 성과가 많은 편인데, 강원도의 행정적인 변천과정과 감영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것, 鄉約·契案 등 향촌사회의 고문서자료와 「司馬榜目」 및 「國朝榜目」의 분석을 통해 향촌사회의 운영과 문중의 실체를 밝히는 것, 한말 유인석 등의 의병운동과 3·1 운동에 대한 것 등에 집중되고 있다.

둘째, 언론기관이 강원일보가 전문학자와 향토사학자를 묶어 강원역의 역사, 자연, 민속 등에 관한 것을 새로 발굴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강원문화총서」 1-20으로 묶어내고 있다.

셋째, 춘천·원주·강릉·삼척의 대학 연구자와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한 강원향토문화연구회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시군별로 유적조사를 실시하여 「역사와 문화유적」을 발간하고 있다.

많은 연구 성과에 비해 보완될 문제점은 연구 성과의 수합체계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한 점, 연구내용의 수준이 행정목적이나 향토애에 치우치고 있는 점, 시사·군지 편찬에 있어서 문헌에만 의거하고 사료 확인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외향적인 유적지 조성 및 문화재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무원칙한 인물 선양에만 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4) 충청지역은 연구사와 연구단체, 충청 지방사 연구의 현황, 충청 지방사 연구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¹⁸⁾

충청지역의 연구단체 중 대학연구소로는 충북대학교의 중원문화연구소(1997), 서원대학교의 호서문화연구소, 공주대학교의 백제문화연구소, 충남대학교의 백제연구소, 한남대학교의 충청문화연구소 등이 있고, 대학박물관으로는 충북대, 충남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박물관 등이 수많은 보고서를 발굴해왔다. 향토사연구회로는 충주의 예성문화연구회,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충남향토연구회 및 여러 지역의 향토연구소 등이 있다.

18) 申榮祐, 金義煥,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景仁文化社, 2000), 110-150.

충청지역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선사시대는 1964년 공주 석장리 유적 발굴을 시작으로 제천, 청원, 단양, 대전의 일부 지역과 금강과 남한강유역에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고, 신석기 유적은 대전 둔산동에서 보습과 어망추 등이, 태안 안면도, 서산 휴암리 등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 유적으로는 부여 초촌면 송국리 일대의 유적은 집터 30여기와 무덤유적이 발굴되어 청동기 연구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초기철기 시기는 당진, 대전 등에서 철도끼, 끌, 동검, 숫돌, 화덕 등이 발굴되었다. 둘째, 삼국 시기는 삼국 쟁패기에 충청지역이 그 중간에 위치하여 백제·고구려·신라의 영역과 관련된 복합적인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구려권 안에서 형성된 충주의 중원고구려비를 비롯하여,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관련연구, 삼국의 쟁패에 따른 관방시설, 산성 및 성곽연구, 옥천·보은·진천 등을 중심으로 한 신라관련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고려 시기는 신라말·고려초 충청지역에 근거를 둔 豪族 세력의 동향과 무인집권기의 진천 출신 집권자인 林衍政 권의 성립을 다룬 것 및 몽골군에 맞서 싸운 충청지방민의 항쟁사례 등에 집중되고 있다. 넷째, 조선 시기는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충남지역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다. 이 시기는 향촌사회사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선 기호학파의 거두인 연산의 金長生, 회덕의 宋時烈, 공주의 李維泰, 노성의 尹宣擧 등이 山黨을 형성하고 노·소론의 주류가 되어 중앙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외에 사족들의 문묘·서원중사운동, 서원·향교의 건립과 운영차체를 다룬 것, 鄉約·鄉案·洞契·社倉·書院·樓亭에 관한 것, 송시열의 학풍을 중심으로 한 예학 연구, 임란의 이병운동, 교통과 관방시설, 대동법 등의 부세문제, 權近·趙憲·金長生·宋時烈·金正禧 등의 인물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다섯째, 근현대는 충청지방의 동학과 농민전쟁, 3·1운동, 손병희·한용운·권동진·홍명희 등의 생애와 사상 등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충청지방 연구의 과제는 충청지방사의 범위와 연구영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점, 선사문화와 백제사를 지방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정하는 문제, 군현단위 연구가 시급한 점, 군현단위 연구를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점, 지방사 연구를 위한 기초 고문헌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를 해야 하는 점, 일제강점기와 광복이후의 현대사 연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점, 경제사 연구를 힘써야 하는 점, 인물사 연구의 대상선정과 방법론에 대해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 전문연구자와 향토사학자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5) 영남지역은 영남 지방사 연구의 전통, 영남지방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지방사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¹⁹⁾ 필자는 영남지방사 연구의 전통은 16·17세기 私撰邑誌의 편찬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영남지방의 재지사족이 향촌지배세력으로 확립되어 가면서, 그리고 이들 출신의 사림과가 중앙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읍지의 중요 내용은 행정과 경제적인 것에 대한 官의 관심과 함께 人物·詩文·禮俗 등 재지사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문화적인 측면, 나아가서는 자연과 경관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남지방사의 연구현황은 연구단체와 연구논문현황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단체에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인문과학연구소,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대구사학회, 부경역사연구소 등이 있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는 영남 사림과 연구를 비롯해서 경북지역 고문서집성, 향약자료집성, 향리관계 자료집성 등을 간행하였고,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영남의 대표적인 동성촌락(여주이씨와 경주손씨)인 良佐洞을 대상으로 역사·사회·철학·문학 등에 관한 연구총서를 냈다.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는 조선 후기 사회사연구의 기초자료인 「경상도연양현호적대장」(1988) 및 개인문집인 「端磬集」(金麟燮, 1999)을 발간하였다. 기타 단체들은 지역 단위 학술조사와 지방자료 발굴정리 및 간행에 공헌하고 있다.

연구논문 현황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영남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업적은

19) 정진영, “영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景仁文化社, 2000), 151-173.

130여 편에 이른다. 130여 논문의 주제는 재지사족 및 지배조직(25), 신분(23), 임란의병(20), 경제문제(15), 민중운동(9), 고문서자료의 분석(5), 의식(5), 정치사(5) 정도이다. 그리고 논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군현단위(진주 10, 안동 9, 단성 7, 대구 6, 상주 5, 통영 4, 언양·울산·함안·동래 3)였고, 군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10)와 가문을 대상으로 한 경우(6)도 다수였으나, 촌락을 단위로 한 경우(4)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용된 구체적인 자료로는 분재기·호구단자 등 개인 및 가문의 자료와 향안·향규·향약 등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의 자료 등 고문서, 그리고 호적대장이 적극 활용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변화가 역동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

영남지방 연구의 과제는 군현단위에서 촌락단위로 연구의 대상을 축소해야 하는 점, 소재주의나 사례연구 경향을 탈피해야 하는 점, 비문헌 자료의 활용 및 기존자료의 새로운 이용 및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점 등이다.

6) 전남지역은 향토사 연구의 태동과 대학 사학과와 설립, 향토사 연구회의 출현, 지방문화원 및 전문연구자들의 연구현황, 연구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²⁰⁾

전남지역의 연구단체중 대학연구소로는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역사문화학회,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광주대 민족문화연구소 등이 있고, 학회 및 일반연구회로는 전남사학회를 포함해서 19개가 있으며, 국공립 박물관으로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있다.

연구현황은 우선 1984년 이후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발행한 「마을유래지」를 중심으로 각 마을의 현황, 유래, 연혁 등을 다루었고, 여기에 1993년 향토지리연구소가 세워지고, 그 출판사인 향지사가 가세하면서 향토지리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역사학도들에게 향토사 집필을 권유하여 그 주목되는 성과들로는 「함평 문화유산 탐구」(신영호, 1997), 「해남 문화유산

20) 高錫珪, “전남지방 향토사·지방사 연구의 추이,”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景仁文化社, 2000). 175-216.

담구」(정윤섭, 1997) 등이 나왔다. 둘째, 마을지에 이어 먼지가 출판되었는데, 통사와 마을유래사 두 형태로 나뉘었다. 통사에는 「내고향 해제고을」(무안 해제), 「송광향지」(순천 송광면) 등이 있고, 마을유래사는 장성군, 장흥군 등에서 연차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셋째, 젊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서남문화연구소는 「조구심리를 행하는 마을」(전남 영광군 묘량면 영운리, 1998)을 출판했다. 이 책은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에서 촌락문화 실태조사의 형태를 빌어 1996년부터 매년 5개소씩 조사하여 펴내는 ‘한국의 전통마을’ 시리즈 중의 하나였다. 넷째, 지명, 유적, 군별 문헌집 등이 간행되었는데 「전남문헌유적총람」(1986), 「마을유래자료집」(1988), 「전남의 금석문」, 「담양군 문헌집」(1980) 및 승주·무안·해남·함평 등의 문헌집들이 나왔다.

연구과제는 지방사 연구정착을 위한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하는 점, 지역 신문들이 향토사 및 지방사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향토사가와 전문연구자들의 연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이다.

7) 제주지역은 연구단체·기관의 활동, 시기별 연구자의 동향, 각 시대사별 연구현황과 특징, 과제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²¹⁾

연구단체 및 기관은 제주역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회, 탐라연구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학연구소, 제주시문화원, 서귀포시문화원 등이 있다

연구현황은 통사류, 선사·고고학, 고대·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통사류는 「제주도역사지」(金奉鉉, 1960), 「탐라문화사」, 「제주통사」 등이 발간되어 제주도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선사·고고학은 1970년대 제주도 고고학의 본격적인 발굴로 인해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빌레못동굴, 천지연 유적,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고산리유적, 북촌리유적,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상모리 산이수동유적, 용담동 분묘유적, 팍지패총, 한림읍 동명리유적, 삼양동 집자리유적 등이

21) 金東柱, “제주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景仁文化社, 2000). 217-276.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대·고려시대에 있어서 고대는 탐라국의 형성, 발전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고려시대는 군현설치와 민란, 삼별초의 제주입도와 항쟁, 제주와 고려·일본·송·원 등과의 관계, 원 간섭기 원의 관부설치와 목마장 그리고 목호란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는 지방통치와 관련한 제주의 토관제의 구조와 특성, 조선 후기 사회·경제 구조 및 지방재정,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 토지매매 및 노비소유권 및 재산상속, 표류·표도, 유배지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근·현대에는 민란, 항일운동 및 제주 4·3사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기타는 마을지 편찬이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인 혹은 마을 편찬위원회에 의뢰해서 한 경우, 제주대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합동조사에 의해서 편찬된 경우, 전문 학자에 의뢰해서 편찬된 경우, 오성찬을 중심으로 ‘제주의 마을’ 편찬팀, 제주학연구소 마을조사팀에 의해서 편찬된 경우가 있다.

연구의 과제는 연구주체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는 점, 표류와 송환 분야의 연구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점, 고려 후기 제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점, 고문서·관찬사료 문집류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점, 고고학적 유물에 기초적인 해석과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점, 제주지역 자료를 수집·정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두어야 하는 점,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하는 점 등이다.

4.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 자료의 이용

한국의 교육과정은 敎授要目期(1946-1954)를 거쳐 7차에 걸쳐 변천되어 왔다. 향토사 교육²²⁾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제5차(1987), 제6차(1992), 제7차(1997)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 제5차·제6

22)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로서는 대부분 향토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방사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차·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향토사 영역이 강조된 변화의 배경에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제의 실시, 시대적 변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 등이 작용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분권화와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²³⁾ 이들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과 향토사학습에 대한 것을 <표 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과정과 향토사 학습

	제5차 교육과정 (1987)	제6차 교육과정 (1992)	제7차 교육과정(1997)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시· 군 · 3학년 인정 도서 발행 · 4학년 지역화 단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지역화 강조 · 4학년 1학기 시도별 사회과 탐구 교과서 개발 · 일부 시· 군 3학년 인정 도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발행된 지역화 교재 활용 예정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사와 관련하여 향토사의 문화유산을 통한 역사관 고취 · 유의점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향토사 자료의 활용으로 역사적 흥미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사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며, 향토사 학습을 통해 향토애를 기르게 한다. · 향토사 학습 단원 편성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임 · 향토사회의 일원으로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사가 민족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향토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가지게 한다. · 향토사 학습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위 <표 1>에서와 같이,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향토사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만 교육과정의 지역화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학습 내에서 향토사 학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향토사의 범주가 약화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향토라고 언급된 내용이 없다. 7차

23) 趙尙濟, “教育課程의 運營과 鄉土史 教育,” 『歷史教育』 68집. 129-134.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역사를 민족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어 향토사학습이 삶의 총체로 표현되고 있다.²⁴⁾

이러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토자료의 이용이 시급하다. 향토사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역사기록물로 전적과 고지도, 고문서와 고지도가 포함된다. 둘째, 고고미술사 자료로 地表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거지, 고분, 고인돌, 석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도구, 불교사원, 성곽, 금석문, 도요지, 토기, 와전 등에 관한 자료이다. 셋째, 고건축과 관련된 것으로 궁전, 성문, 묘단, 객사 및 관아, 사찰, 학교, 주택, 재실 등에 관한 자료이다. 넷째, 사회제도사와 관련한 것으로 촌락사, 촌락제도, 혼인제도, 가족과 친족 등에 관한 자료이다 다섯째 通過儀禮에 관련된 것으로 출산의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여섯째, 민속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가신신앙, 洞神신앙, 무속신앙 등에 관한 자료이다.²⁵⁾

5. 한국 지방사 아카이브의 구축·통합 및 이용

한국의 지방사 아카이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지역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수집·정리하는 방안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 이들 지방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지방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은 기관별로 진행되었지만 도서관과 박물관의 자원공유를 위한 통합 및 이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본 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유산 기관인 도서관간의 역사자료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 박물관간의 국가문화유산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 지방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이용하려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4) 유승광, “향토사교육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 제5호, 169-191.

25) 林洪洛, “郷土史 資料의 現場 適用性 研究,” 『역사교육』 55, 23-38.

5.1 도서관간의 역사자료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

한국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8장에서는 도서관간 협력망 구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계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대학도서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협력사업과 지역단위 협력망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중 각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지방사 자료의 정보화는 국가적인 차원의 역사자료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역사분야에 있어서는 지식자원관리법의 시행으로 2001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고, 그 이듬해 ‘한국역사분야 지식정보기반화전략계획(ISP)[안]’을 수립함으로써 DB 구축방법론과 시스템 개발, 표준화 등의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²⁶⁾

특히 DB 구축으로부터 촉발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취지에 따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료의 DB 구축과 귀중 자료의 보존 관리란 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이었던 한국전산원의 「역사분야 자료조사결과」(2003. 2)에서 역사자료에 대한 지식자원 선정 기준을 연구 기여도, 사회적 활용도, 보존가치 등에 두었던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2> 역사자료에 대한 지식자원 선정기준

기준	세부지표	예 시
연구기여도	해당시대를 이해하는 기초자료	조선왕조실록, 한국사 기초사전 등
	활용빈도가 높은 해당시대의 종합자료	관찬사서, 주요문집, 신문/잡지 등 근현대 정기간행물 등
	분야별 전문자료	인명록, 정부 공문서, 통계집, 재판자료, 양안, 회사 경영자료, 토지문서, 외교문서 등
사회적 활용도	정보화와 이용이 용이한 가공된 자료	국역자료 등
보존가치	유일본/귀중본	

26)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역사분야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사업 완료보고서」(2002. 4. 16)

이에 따라 역사분야에서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한국역사자료 수집·연구·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우리 고전의 국역기관인 민족문화추진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도에 시작한 이 사업은 2001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됨으로써 대표기관인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004년도 11월 말까지 1단계 사업 총 392억원(추경 제외)을 투입하여 마무리하고, 2005년도 현재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인 국사편찬위원회가 2단계 1차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종합정보센터가 이미 12개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 전문정보센터의 활성화와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활성화와 역사자료²⁷⁾ 통합체제 구축 및 표준화에 진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소장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적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역사자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자료DB 구축은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의거 역사분야의 지식정보자원 DB 구축 및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 왔지만,²⁸⁾ 대학은 역사적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디지털화는 극히 저조한 편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역사자료DB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27) 이곳에서 목표로 하는 콘텐츠 구성안은 역사자료도구, 한국사홍보 정책자료, 기초사서류, 민간고도서, 서양고도서·해외수집자료·근대식민지자료·독립운동사자료, 전쟁사관련 자료·근현대사사회운동 관련자료·인물관련자료, 지방·향촌사 관련자료, 학술연구 및 학회 연구지, 문화재 관련 자료 등을 망라한다.

28) 역사분야의 지식정보자원DB 구축 및 통합서비스는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추진위원회 4개 기관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하였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어 관문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국보급 자료를 디지털화 및 통합서비스하고 있다.

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고문헌의 서지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고문헌을 선별하여 원문을 디지털화하고 탈초, 해제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가공 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자료의 전자적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소개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목록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화 된 원문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역사자료DB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질적인 환경 하에 분산 구축되어 있는 고문헌DB 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제정된 표준이 국내·외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는 것이다.

역사자료DB 구축의 세부진행은 5개년 계획(2004~2008)으로 진행하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고문헌의 서지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표준포맷인 KORMARC-고서용-포맷에 의거하여 새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된 서지정보는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중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10%의 자료를 선별하여 원문DB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해제 및 탈초 등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자료의 전자적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학이 구축한 고문헌 DB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통합서비스하고,²⁹⁾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고문헌 서지DB를 공동으로 구축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종합목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⁰⁾

5.2 박물관간의 국가문화유산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장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명문화

29) 대학에서는 대학 내 모든 자료의 통합서비스를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고서 MARC로 구축하고 있으나, 국가편찬위원회에서는 고서원문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DC(Dublin Core) 기반의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활용.

30) 강순애, "역사자료정보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관정책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5-2), 1-139.

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는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1997 -2010)’을 발표하였고, 이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구축된 국가문화유산정보시스템은 전국 26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http://www.heritage.go.kr>)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정보화추진 기금의 재원으로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9개 국립지방박물관, 7개 공립박물관, 8개 대학박물관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26개 박물관의 소장 유물 등 10만점에 대한 문화재 소개정보와 사진정보, 3차원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전국의 중요문화재에 대한 포털 사이트 구축, 사이버 박물관운영, 문화재 및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검색, 전국 박물관 소장유물의 표준유물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도 완료하였다. 국가문화유산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은 2000년부터 연차별로 2005년까지 64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250여개 국립, 공·사립·대학박물관 및 전국의 문화재정보를 종합네트워크로 구축, 범국가적으로 국가문화유산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³¹⁾

또한 문화관광부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culture-arts.go.kr>)은 2010년까지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연극, 음악, 무용, 영상, 문화정책, 문예일반, 미술 분야 전체의 콘텐츠로서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등이 참여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박물관 협력체제의 구축은 정부주도의 통합 문화유산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성공적인협력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³²⁾

31) 강은수,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인터넷상의 소장품정보 네트워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 소장품관리전공(2003. 6), 70-73.

32) 박재용, 조윤희,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권 2호(2004. 6), 315-333.

이들 도서관과 박물관들은 서로가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이 독립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고, 서로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을 인식하여 상호기관간의 협력체제 모형개발이라든가,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에 대한 연구가 일부 시도되고 있긴 하지만 도서관과 박물관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5.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향후 10년을 목표로 한국 향토의 역사·전통·풍물·생활·전승·예술·유물·유적 등의 모든 역사적 유산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현재적 모습 등 그 고장에 관한 모든 사실과 자료를 분야별로 체계 있게 조사, 집대성하여 이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총집대성하려는 프로젝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는 2001년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했는데³³⁾ 그때 제시된 것은 9편이다. 9편의 내용을 보면, 제1편 삶의 터전 : 자연과 지리, 제2편 삶의 내력 : 지방의 역사, 제3편 삶의 자취 : 문화유산, 제4편 삶의 주체 : 성씨와 인물, 제5편 삶의 틀(1) : 정치와 행정, 제6편 삶의 틀(2) : 경제와 산업, 제7편 삶의 내용 : 종교와 문화, 제8편 삶의 방식 : 생활과 민속, 제9편 삶의 이야기 : 구비전승과 어문학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향토문화전자대전의 편찬과정에서 활용할 편찬전자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편찬 작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각종 향토문화 참고자료를 수집·정리하며 향토문화 관련 기본 자료를 집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향토문화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조사 연구」(2001), 10-11.

아카이브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232개의 시군구의 행정기관, 박물관·미술관, 기념관·전시관, 문화회관/문예회관, 문화의 집, 전국공연장, 유물/유적지, 유명사찰·향교·개신교·천주교 및 기타종교관련 유적지, 명승지, 지역축제 및 행사기관 등의 책자, 도록, 소책자, 팸플렛·리플렛, 안내지도, 웹사이트, CD·DVD, VHS 등 비디오, 카세트·음반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여 편찬자 또는 일반 이용자들이 열람, 검색 및 대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향토문화자료관을 만들고, 향토문화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한국향토문화대전 집필, 교열 등 편찬의 전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온라인 디지털향토문화아카이브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첫째, 문화적 자본재로서의 역할인데, 문화와 예술은 신상품의 개발 및 기존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소품 및 생활용품에 상징을 담거나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이 현대적 공연예술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고, 디지털 혁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 및 연구와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타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데, 전국토의 정보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며, 정보통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의 지역적 통합과 문화영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고, 문화부흥의 최대 전환점을 이루는 문화사적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³⁴⁾

7. 결론 : 평가와 전망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조사 연구」(2001), 13-22.

서 그 결론은 평가와 전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지방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 등으로 사용되면서 혼용은 되고 있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지역사 또는 지방사로 사용되고 있고, 교육 분야와 문화컨텐츠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향토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한국의 지방사 자료들은 1980년대 이후 시기별 지역별로 체계화되어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려 연구되고 발표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보면, 중앙의 입장에서 개관적으로 조명된 지방사나 보편성의 기반위에 지역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지방사와의 자료정리의 수집 정리와 활용에 있어서 지역별로 체계성과 통합성이 결여된 점, 전문연구자와 향토사학자간의 연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연구주제를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야 하는 점 등이다.

3) 교육과정은 제5차·제6차·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향토사 영역이 강조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분권화와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역사기록물, 고고미술사 자료, 고건축 관련자료, 사회제도사 자료, 통과 의례자료, 민속신앙 등의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4) 지방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지방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은 기관별로 진행되었지만 도서관과 박물관의 자원공유를 위한 통합 및 이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서관간의 지방사 자료는 국가적인 차원의 역가 자료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분야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자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의 정보화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자료의 통합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박물관간의 협력망은 국가문화유산종합시스템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까지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향후 10년을 목표로 한국 향토의 모든 기록을 총집대성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

를 수행하기 위해 오프라인 향토문화자료관을 만들고, 향토문화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며, 한국향토문화대전외의 집필, 교열 등 편찬의 전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온라인 디지털향토문화아카이브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5) 최근에는 지식자원의 공유는 물론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상호협력체재를 구축해나가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먼저 협력체재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도서관과 박물관은 협력체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재의 구축은 멀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 사업이 완성되면 향토사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 “포스트모던 역사학과 지방사.” 『전남사학』 제23집. 249-269.
-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3-40.
- 광주광역시교육청. 『향토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향토사 수업자료집』, 동교육청,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와 옛문서』. 同博物館, 1991.
- 國立中央博物館. 『博物館 遺物管理 電算化 를 위한 遺物分類標準化』, 同博物館, 1996.
- 김기수.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유럽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고』, 박물관학회 학술논문. 73-96.
- 김중국. “경기북부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8권 8호(2002). 57-64.
- 김주형 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기능의 박물관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2003. 10). 24-25, 191-194.
- 김준형. 『새로운 지역사 연구 및 향토교육을 위하여』. 3-17.
- 김희준. “중등학교 향토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5 권 1 호, 151-182.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4.
- 박재용, 조윤희.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2).
-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1 : 지방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학연문화사, 2000.
-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2 : 지방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학연문화사, 2000.
- 유승광. “향토사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 제5호, 169-192.
- 李啓鶴 외. 『假稱『民國輿地勝覽』編纂을 위한 研究: 分類體系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李啓鶴 외. 『假稱『民國輿地勝覽』編纂을 위한 研究(2): 內容體系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이수진. “한국의 성씨와 족보.” 『한국의 탐구2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李樹健. “韓國에 있어서 地方史 研究의 回顧와 現況.” 『大丘史學』 제20·21輯, 85-102.
- 이용남 외. “공공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평가.”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2002). 127-154.
-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 李海濬. “地方史 研究에 있어서 古文書資料의 活用.” 『정신문화연구』 15권 1호(1992). 51-68.
- 정은숙. “박물관자료 진산화를 위한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1995.
- 정주연.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8. 8.
- 정진영. “영남지역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59-81.
- 趙尙濟. “教育課程의 運營과 鄉土史 教育.” 『歷史教育』(68), 129-134.
- 조성을. “경기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京畿史學』 3, 147-175.
- 조윤희. “문화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II)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9호(2004. 9).
- 조원찬. “國史教育에서 總括(Colligation)을 이용한 鄉土史料의 活用 方案.” 『역

사와 역사교육」 제 5호. 133-167.

崔洪奎. “수원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京畿史學』 3, 177-208.

韓國史研究會. 『韓國地方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景仁文化社, 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조사 연구』. 동연구원, 2001.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1세기 정보화시대와 향토사 연구』. 제 13회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학술대회 (1999. 11). 27-28, 1-77.

Tomas A. Lipinski.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Scarecrow Press, 2002.

Edwards, P. M.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acros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 Novel Collaborative Approach.”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48 no.1 (January 2004) 26-33.

Hoon, P., “Reviewer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Legal Issues and Ethical Challenges in the New Information Era (Book Review).”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29 no.1 (January 2003). 55.

Hyde, G., “Reviewer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Book Review).”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64 no.2 (March 2003). 165-6.

Lawrence, D. E. “Renovation of the Brookly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A Twenty-Year Accomplishment.” *Art Documentation*, v.23 no.2 (Fall 2004). 40-3.

Maier, G. “Common Internet Portal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 BAMPortal.” *International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32 no.3 (July/September 2003). 44-6.

Marcetteau-Paul, A., reviewer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convergence (Book Review).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v.47 no.6 (2002). 126-7.

McIlwaine, I. C. Interoperability: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Workshop held during the IFLA Conference, Edinburgh, 22 August 2002. *International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Control*, v.32 no.3 (July/September 2003). 43-9.

- Roel, E. "The MOSC Project: Using the OAI-PMH to Bridge Metadata Cultural Differences across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v.24 no.1 (March 2005). 22-4.
- Ball, D., et. al., Outsourcing and externalization: current practice in UK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Folkestone, England) v.34 no.4 (December 2002). 197-206.
- Bourdon, F. Modeling Authority Data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 Project in Progress at AFNOR.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39 no.1/2 (2004). 505-16.
- Chandler, R. Museums in the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MOAC): Building Digital Collections Across Libraries and Museums [computer file]. *First Monday* (Online), v.7 no.5 (May 2002). 1 E-Journal Link.
- Chaudhry, A. S., et. al., "Enhancing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on heritage: A case of development of a taxonomy at the Integrated Museum and Archives System in Singapore." *Journal of Documentation*, v.61 no.6 (2005). 751-76.
- Chorvat, L. K. Genealogy collection of the CSA Fraternal Life in the Czechoslovak Heritage Museum library and archives. *Illinois Libraries*, v.74 (November 1992). 422-5.
- Davies, R. "PULMAN: Public Libraries, Local Museums and Archives Learning from Each Other in eEurope." *Alexandria*, v.15 no.3 (2003). 151-69.
- Gill, T. Building semantic bridges between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The CIDOC Conceptual Reference Model {computer file}. *First Monday*(Online), v.9 no.5 (May 2004). E-Journal Link.
- Holley, R. P., rev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Convergence Archives, Bibliothèques et Musé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36 no.2 (2003). 99-101.
- Kalfatovic, M. R. Creating a winning online exhibition: a guide for libraries,

- archives, and museums. *American Lib. Assn.*, 2002. 117.
- Kingsley, N. W.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UK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rbido*, v.15 no.6 (June 2000), 9-14.
- 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MLAC sets its sights high. *Library Association Record*, v.102 no.3 (March 2000). 123.
- Ostby, J. B. Co-operation between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Scandinavian Public Library Quarterly*, v.36 no.2 (2003). 3.
- Owen, T., et. al.,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collabor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Art Libraries Journal*, v.24 no.4 (1999). 10-13.
- Rinehart, R. MOAC--a report on integrating museum and archive access in the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computer file}. *D-Lib Magazine*, v.9 no.1 (January 2003). E-Journal Link.
- Sykes, J. Find it in London: a unique co-operative venture acros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rt Libraries Journal*, v.28 no.1 (2003). 19-23.
- Weisen, M., et. al., Web Accessibility Revealed: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Audit [computer file]. *Ariadne* (Online), no.44 (July 2005). 1. E-Journal Link.
- Yakel, E. Archives and Manuscripts: Choices and challenges: Cross-cutting themes in archives and museums. *OCLC Systems & Services*, v.21 no.1 (2005). 13-17.
- Yeates, R. An XML infrastructure for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resource discovery in the COVAX project [Contemporary Culture Virtual Archive in XML]. *Program*, v.36 no.2 (2002). 72-88.

КСІ